

사디즘(sadism)의 관점에서 본 『탁류』의 의미*

김주리**

차 례

1. 문제제기
2. 경제적·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재
3. 유사 가족의 형성과 폭력
4. 법과 도덕의 아이러니와 사디즘
5. 결론

본고는 부정성의 정신으로서 진정한 초자아 찾기와 관련된 사디즘의 관점에서 『탁류』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지배의 미학으로서 사디즘은 폭력을 통해 현실질서, 현실의 도덕과 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며 제도 너머의 초자아를 확립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먼저 『탁류』에는 경제력을 상실했거나 생식력을 상실했기에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아버지들이 등장하며, 그러한 아버지들에 대응하듯 대부분의 인물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설정되어 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도덕적 경제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주어지기에 이로부터 어머니의 도덕이 극복 대상이 된다. 『탁류』에서 그려지는 다수의 폭력은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도덕이 지배하는 가정 속에 투입한 유사 가족들에 의한 가족의 붕괴나 해체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유사 모자 관계인 김씨와 고태수가 성관계 끝

* 이 논문은 2006년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동덕여자대 교양학부 비정년 전임강사

에 한참봉에게 맞아죽고, 유사 친족인 박제호와 초봉이 부부관계를 맺으며 부부관계인 초봉이 남편 형보를 죽이는 것처럼 가족 내에서 폭력은 지배자의 도덕에 대한 복종, 저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초봉은 형보가 비정상적인 성욕을 품고 있기에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어머니 유씨의 도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초봉에 비해 『탁류』에서 현실과 도덕의 불일치를 수궁하고 도덕이나 제도 너머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초봉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모두의 위에 어른스럽게 군림하고 있는 기생 행화나 유곽집 여주인이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순된 논리 속에 매춘을 지속하면서도 자신을 도덕률 너머의 초자아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가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화는 아버지가 사라진 세계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어른)의 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사디즘, 아버지의 부재, 유사 가족의 폭력, 법과 도덕의 아이러니

1. 문제제기

채만식의 『탁류』는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5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198회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채만식은 그 창작의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선량한 여자 하나이 처음 인생을 스타트 하자, 세상이 탁함으로써 억울하게도 가추가추 격는 기구한 ‘생활’을 중심으로 시방 세태의 이수적은 몇 귀탕이를 그린 것”¹⁾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창작의도에서 밝힌 것처럼 『탁류』는 여주인공의 선량함과 세상의 탁함이 결합해 생겨난 ‘기구한 생활’을 제시하는데, 이때 세상의 탁함은 주인공의 삶을 지배하며 선량한 주인공은 그 혼탁한 세상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구도가 그려진다. 즉 『탁류』에는 지배와

1) 채만식, 「『탁류』 연재예고」, 『조선일보』, 1937.10.9.

복종의 문제가 선악(훈탁)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탁류』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적 관점²⁾, 상호텍스트적 고찰³⁾, 담론과 주체구성 문제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탁류』가 가진 식민지 현실반영의 측면을 긍정하면서 특히 군산 미두장을 중심으로 한 세태 묘사와 고발정신을 고평해 왔다. 반면 서울 초봉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는 신문소설의 통속성으로 파악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⁵⁾ 그런데 『탁류』가 창작 의도에서 밝힌 것처럼 선량한 한 여성이 훈탁한 현실과 조우하면서 폭력적으로 지배당하는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폭력과 지배의 문제는 전반부와 후

2) 『탁류』를 세태소설이나 통속소설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작품이 가진 식민지적 현실반영과 고발의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경우이며 대표적으로 이래수, 『채만식 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6 / 한형구, 『채만식의 세계관과 창작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 1987 / 한지현,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본 『탁류』 연구』, 연대 박사, 1988 / 신두원, 『채만식 소설의 리얼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리얼리즘』, 한양출판, 1995 / 이희정, 『채만식 『탁류』의 인물과 공간 연구』, 서강대 석사, 1999 등 외 다수가 있다.

3) 일반적으로 『탁류』와 『홍부전』, 『심청전』과 같은 고전과의 관련성이 지적되며 『무정』과의 유사성이 지적되는가 하면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희수, 『채만식 소설 연구 : 서사 전통과의 연계 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 1996 /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 윤영옥, 『채만식 소설의 상호텍스트성과 패러디』, 『한국언어문학』 48, 2003 / 정홍섭, 『『탁류』의 개작과 『무정』 패러디』, 『어문논총』 31권 2호, 2003년 여름 등 참고.

4) 우한용, 『채만식 소설 담론의 시학』, 개문사, 1992 / 김연숙, 『채만식 문학의 근대 체험과 주체구성 양상 연구』, 경희대 박사, 2002 / 박심자,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현실대응으로서의 여성주체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 2003 /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등.

5) 이와 달리 『탁류』 후반부를 희생제의적 폭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1992 / 우한용, 『시대적 희생제를을 읽어내는 방법』, 『탁류』, 서울대출판부, 1997.

반부를 막론하고 좀 더 면밀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탁류』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종결된다”⁶⁾고 표현될 만큼 다수의 폭력이 서사를 지배하고 있기에 그 폭력이 가진 의미를 묻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사디즘의 관점으로 『탁류』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탁류』의 사디즘적 성격에 대한 지적은 김 씨-고태수, 초봉-장형보의 도착적 성관계를 특징짓기 위해 잠깐 언급될 뿐 『탁류』를 지배하는 전반적인 폭력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정적 폭력성이 『탁류』의 통속성을 구성한다는 논의 속에 왜 채만식이 그러한 선정적 폭력으로 특정한 현실과 특정한 인물을 특정하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탁류』의 폭력이 가진 성격을 묻는다는 것은 채만식이 그려낸 시대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사디즘을 단지 작품 속에 나타난 도착적 성관계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주인공의 운명을 지배하는 논리,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의 성격을 지배하는 논리로 바라보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사디즘을 마조히즘과 관련지으면서 남자들의 성욕에는 대체로 공격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이 성본능의 공격적 요소와 부합되는 성욕 도착이 사디즘이라고 본다.⁷⁾ 하지만 들뢰즈는 사디즘이나 마조히즘을 성적 도착으로 보기보다는 제도나 법에 대한 특징적인 위반의 형식과 관련지어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사디즘이란 무엇보다 부정성의 정신으로서 진정한 초자아 찾기와 관련된다. 사디즘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초월하며 무질서와 혼란을 퍼뜨리는 분열을 대

6) 안낙일, 「비극성과 통속성, 그 심미적 거리-『탁류』의 대중문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2002, 99쪽.

7)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3, 48~51쪽 참고.

변하는 일차적인 자연인 아버지(초자아) 찾기, 즉 창조·보호·재생산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어머니를 대체하여 원시적 무정부주의의 힘을 통해 모든 생산적인 것에 종말을 고하는 폭력이다. (이때 아버지가 반드시 남성이 아니고 어머니가 반드시 여성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사디즘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폭력을 통해서 현실의 도덕과 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며 제도 너머의 초자아를 확립하려는 시도와 관련된다.⁸⁾ 이런 관점을 통해 본고는 『탁류』에 나타난 여러 유사 가족관계와 인물의 상동성, 반복되는 폭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탁류』는 도덕적인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는 한 선량한 처녀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진행되는 지배의 폭력에 관한 이야기이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정성의 힘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이다.

2. 경제적·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재

『탁류』에서 그리는 ‘혼탁한 세대’의 일차적 요인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이다. 『탁류』는 ‘명일이 없는’ 아버지 정주사의 이야기로 출발한다. “버서부치고 농사면농사 노동이면노동을 해먹고 사는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아득하기는 일반이로되 그러나 그런사람들과도 또달려”⁹⁾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아버지 정주사는 가족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자리를 상실하여 부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 정주사가 몰락한 자리에서, 가족들은 어머니 유씨의 노동(바느질)과 도덕을 중심으로 재편된다.¹⁰⁾ 초봉에게 정주사는 권위를 가지고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8) 들뢰즈, 이강훈 역, 『매저키즘』, 인간사랑, 1996, 65~67, 87~90쪽 참고.

9) 채만식, 우한용 주석, 『탁류』, 서울대출판부, 1997, 7~8쪽.

10) 박선경은 『탁류』의 모녀관계를 낸시 초도로우의 양육논의와 관련지어 어머니와 딸

아버지로 군림하지 못하고 동정과 보살핌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광대뼈가 툭 불거지고 흘쭉빠진볼은 배가 불러도 시장만해보인다. 기름스기엿는 얼굴에는 오월의 맑은날에도 그늘이 져다. 분명찬흔 눈을 노상두고 깜작깜작어린다. 그것이 더 꼴이 궁상스럽다. (...) 다섯자가 뿔탁 말라한키에 가슴을 딱 버티고 한팔만 뒤짐을 지고, 그리고 짝바라진 여덜 팔자걸음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맵씨란, 시체에는 보기드문맵씨다.¹¹⁾

‘시체에는 보기 드문 맵씨’로 자꾸만 몰락해 가는 정주사는 행색부터가 초라하고 수염조차 성치 못한, 우스꽝스럽게 전략한 구세대이다. 그는 자그마한 키에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 같은 면모를 보여준다. 가족을 건사하기보다는 미두로 돈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보호자가 되기보다는 걱정이나 손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초봉이나 계봉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인 유씨의 도덕과 결합할 때에만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초봉의 삶이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일차적으로 억압적인 가부장의 역할(가부장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머니의 명령과 지배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오늘뿐아니라 인제고 일이 이러케든지 저러케든지 곳장이날때까지는 둘이 다 지지아니하고 고집을 세우게될것이다. 그러나 이부부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루 옥이다가 필경가서 누가 지느냐하면 언제든지 남편 정주사가 지고만다. 그러니까 이번일도 만일 달리 마새가 생기지만 아니하면 초봉이는 마음먹은대로 제호를 따러 서울로 가게될터이다.¹²⁾

의 전외디푸스적 애착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박선경, 『『탁류』 여주인공의 세계인식과 행동양식에 대한 정신분석』, 『어문학』 71집, 2002) 본고는 유씨-초봉의 모녀관계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분석이 좀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아버지의 부재라는 『탁류』의 특수성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보인다.

11) 채만식, 『탁류』, 13~14쪽.

가령 초봉은 제호를 따라 서울로 가는 일에 어머니의 결정만을 기다린다. 아버지 정주사의 반대쯤은 예상하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립에서는 항상 ‘남편 정주사가 지고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도덕적 경제적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머니의 결정이 따라야할 명령이 된다.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초봉과 반항하는 계봉의 서사는 가족 내 어머니와 자식간 지배 논리의 작용에서 일정한 대비를 보인다. 초봉의 운명을 불행으로 이끄는 고태수와의 결혼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태수에 대한 정주사의 만족이 아니라 유씨의 만족이다. 초봉은 ‘부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좇는 자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좇는 그런 자식인 것이다.

정주사 부부, 특히 유씨의 도덕성은 고태수의 내력을 캐지 않는 결혼에 의해 유지된다. 그들은 초봉을 이용해 가족의 생계를 도모한다는 이면을 숨긴 채 태수의 표면(부잣집 자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초봉과 그를 결혼시키려 한다. 어머니 유씨는 자신과 딸을 과도하게 동일시하여 자신의 모성애(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초봉에게 똑같이 요구한다. 그래서 초봉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어머니의 역할이나 논리를 모방해 결혼을 받아들인다. 유씨는 자신의 의도가 계봉이라는 거침 없는 악동에 의해 간파될 것을 알기에 계봉에게는 태수가 살림밑천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만 초봉에게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초봉이 결혼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길들여진 초봉은 스스로 불행으로 뛰어들다.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을 모방하는 복종에 길들여졌다는 점에서 그녀는 지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즉 사디즘의 피해자 역할에 고착된다.¹³⁾ 그는 성

12) 위의 책, 71~72쪽.

13) 사디즘의 피해자 역할과 매저키스트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디즘의 피해

공하기 위해 친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희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주사와 달리 경제적인 무능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난 한참봉이나 박제호는 생식불능이라는 점에서 역시 아버지의 부재를 보여준다. 그들은 한 여성의 남편일 뿐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데, 이로부터 그들을 둘러싼 혼란이 출발한다.

이렇게 겨우 십여년간에 남은 팔찌를 곤치리만큼 잘되었는데 자기의 몰락된것을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그때부터칠팔백원 그미천으로 장사나 했드라면 하는 후회가 들어 그래쌌이나고 심정이 상하든것이다. (...) 『말두마시우 가난한사람이 자식만만흐면 소용잇나요? 차라리 엽는게 팔자가 편하지』/ 『그런말슴 마슈 나는 돈냥잇는것두 다 실희니 자식이나 한 개두 잇으면 좃겏습디다』¹⁴⁾

정주사의 고향친구인 제중당 주인 박제호와, 정주사의 동네친구인 싸전가게 탐삭부리 한참봉은 날로 몰락해가는 정주사와 달리 날로 흥성해간다. 두 사람은 아내에게서 자식을 보지 못하자 젊은 여성과 관계하며 자식을 바라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생식불능으로 인해 아내들에게 어느 정도 쥐여살거나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외양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정주사에게 강한 생식력이 주어진 반면 책임감과 경제력을 갖춘 그들에게는 생식불능이라는 운명이 주어지고 있다. 그들은 훌륭한 상술을 가졌기에 능동적인 아버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이 자식을 얻기 위한 간통행위를 보상하지 못하기에 부

자는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지 않으며 고통을 끌어들이는 존재로, 고통을 통해 사디스트로 변모할 수 있다. 반면 매저키스트는 어머니의 채찍질을 통해 잠재된 아버지를 처벌하는 쾌락을 즐기는 존재다. 들뢰즈, 앞의 책, 39~50쪽 참고.

14) 채만식, 『탁류』, 26~28쪽.

정된다. 즉 그들은 아내의 간통이나 히스테리에 의해 그 생식불능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정주사, 한참봉, 박제호 등 아버지 세대들이 그 생식불능이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아버지의 위치를 잃는다면, 아들 세대라 볼 수 있는 남승재, 고태수, 장형보, 정초봉과 계봉 등은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그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승재는 본시 서울대생이었었고 다섯 살에 고아가된것을 그의 외가편으로 일가가 된다면 되고 아니된다면 아니되는 어느 개업의가 마지못해서 거두어갈렀다. (...) 그 의사는 받은 동정심에서 받은 어떠한되나하는 호기심에서 승재를 보통학교로부터 중등학교까지 졸업을 식혔다. / 승재는 학교에다니는한편 주인의 진찰실과 제약실에서 자라다시피했고 (...) 그는 제가 의사시험에 파스가되어 의사면허를 얻게될것을 유유하게 맞는다. 자연과학의 힘을맞는다.¹⁵⁾

고아인 남승재는 어느 의사의 동정심과 실험(어떻게 되나 하는 호기심)에 의해 교육을 받고 ‘진찰실과 제약실에서 자라다시피’해서 의사가 된다. 삶 자체가 하나의 실험으로 자리하기에 그는 자연과학의 힘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낙관한다. 가난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계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실험이라는 운명은 그에게 진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실험에 의해 고아에서 의사로 성공하는 계층에 편승하지만 그의 인생이 가진 실험이라는 특성은 더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비관만을 낳을 뿐이다. 그는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지 않기에 오히려 비관에 사로잡히고 한계를 노정한다. 근대과학의 한계에 붙잡혀 실험실에서 바라보듯 세상을 유희와 동정으로

15) 위의 책, 79~81쪽.

바라보고 있기에, 그는 초봉과의 연애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며 그녀의 삶에 조력자의 역할도 다하지 못한다.

실험실과 연관된 남승재와 달리 고태수는 상업 경제의 중심인 은행과 연결된 고아이다. 은행 당좌계원이라는 위치와 지식을 이용해 손쉽게 소절수를 위조하고 횡령을 저지르는 그는 자본주의의 숫자 놀음 속에서 타락해 간다. 남의 돈까지 손을 대어 주색에 침혹한 끝에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 도망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두 가지 외에는 별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오히려 더 기세 좋게 도박을 하고 술과 여자를 즐기고 사기 결혼까지 행한다. 죽음을 결심했기에 삶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다. 그는 초봉의 운명을 거짓으로 망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한편으로 친구 형보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든지, 초봉에 대한 애정과 약속을 이행하려든다는 개인 윤리, 신뢰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덕적인 면모를 지니는 희귀한 악당이다. ‘도덕적 악당’ 고태수는 ‘이기적인 자선가’ 남승재와 유사한 아이러니를 보인다.

태수의 모친은 중년과부로 남의집 안잠을살고 바누질품 빨래품을 팔어가면서 소중한 외아들 태수를 근근히 보통학교까지만은 졸업시켰었다. (...) 아이가 위선 외모가 똑똑하고 하는것이 영리하고 그런데다다 을종이나 학교의이력과 여러해 은행에서 치어난 경력과 또 소속한 과장의 눈 에고인덕으로 스물한살되는해에 승차해서 행원이되였다.¹⁶⁾

입지전적인 고태수의 행적은 남승재의 그것에 대응한다. 승재가 고아이듯 태수는 가난한 중년과부의 자식으로, 고생 끝에 현재 행원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성공에는 부지런함과 영리함 그리고 똑똑한 외모가 작용한다. 승재의 성공이 야만적인 외모에 비해 영리한 침착성과 양육자

16) 위의 책, 107쪽.

의 실험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 태수의 성공에는 어머니의 희생과 자신의 노력, 주변인의 호감이 개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호감가는 외모와 꾸준한 노력, 영리함을 가진 청년이 어찌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하고 성장하는 대신 주색에 빠져 탕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사실 초봉의 운명과 고태수의 운명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고태수가 과부의 아들로 성실함과 똑똑한 외양을 바탕으로 주위의 신뢰를 받아 은행원이 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하고 나이든 여성과의 타락한 성관계 속에 살해당하는 운명을 맞이한다면 초봉 역시 외모와 성실성으로 인정받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하고 나이든 남성, 불구 남성들과 관계한 끝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다. 아름답고 성실한 두 남녀의 타락 과정이란 도식적이라 할 만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고아가 장형보이다. 의사 남승재가 자연과학의 양면성(실험-현실괴리)을, 은행원 고태수가 자본의 양면성(축적-탕진)을 보여준다면 사채업자 장형보는 법과 제도가 가진 양면성을 형상화한다.

이 사람을 목강탕에서보면 더욱 기괴하다. 『고리라』의 뒤틀린듯스럽게 오금이 굽고 발이 박그로 벌어진 두다리우에 그놈 등뒤로 흑이달린 짧은 동체가 부터잇고 다시 그위로 모가지는 잇는둥마는둥 중대가리로 박박까은 박통만한 큰머리가 괴상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 부모처자도업고 인 천이며 서울이며 안동현이며 이런 투기시장으로 굴러다니다가 태수보다 조곰압서 군산으로 왔섯다.¹⁷⁾

장형보는 기괴한 외양을 가진 장애인으로 자본주의의 도박적 속성을 대변하여 술장사나 수형할인 같은, 제도가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장사

17) 위의 책, 111쪽.

를 획책한다. 미두나 수형할인, 술장사, 계집장사 등은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이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당당히 보호받는 시장으로 긍정된다. ‘부도덕한 시민’이라는 아이러니가 다른 두 주인공(이기적인 자선가 승재, 도덕적 악당 태수)과 마찬가지로 전개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형보는 초봉을 강간한 외에 그녀의 운명에서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 남편이 죽은 후 박제호의 첩으로 살고 있던 초봉에게 다시 일 부일처제 가정을 허락하고 초봉의 집안까지 먹여 살리는 존재가 형보이다. 그렇다면 초봉에 대한 형보의 지배가 태수나 제호의 그것에 비해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¹⁸⁾ 이는 형보가 형성하는 폭력이 유부녀 초봉에 대한 강간과 그 여동생 계봉에 대한 욕망과 같은, 정주사의 아내 유씨의 도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나타낸다는 데 있다.

『초봉이두 말이야 실혼사람의 자식을 나서 기르느니라 생각을하지말구 응? 그저 사람 인간을하나 나서 기르느니라 이러케 생각을 하란말이야 그냥 사람 그냥 인간말이지 응? 알겠지? 그리구 인제는 다시 그런 긴찬흔짓은 안키야?..... 안치?』¹⁹⁾

자식을 두지 못한 박제호는 낙태약을 먹은 초봉에게 역설적으로 어머니 유씨과 같은 모성애의 도덕을 가르치기에 형보만큼 부정되지 않는다. 제호의 논리는 아버지 모르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단지 인간 그것으

18) 황국명은 『탁류』에서 진정한 희생양은 초봉이 아니라 형보이며 형보의 죽음을 통해 자본주의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적 안정성이 획득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흥미롭지만 초봉의 ‘폭력’이 아니라 형보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남승재 중심의 가치가 긍정된다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본고는 초봉의 ‘폭력’을 통해 남승재가 아니라 행화의 가치가 긍정된다고 볼 것이다. 황국명, 앞의 책, 80~89쪽 참고.

19) 채만식, 『탁류』, 355쪽.

로 가치롭다는 근대 인본주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그냥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존재로서 어머니를 강조함으로써 친구의 딸을 피어내 첩으로 삼은 그의 부도덕성은 뇌리에서 사라져버린다. 어머니를 강조하는 제호의 명령에 따르면서 초봉은 첩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어머니라는 위치를 획득하게 되고, 송희의 어머니로서 형보와 결합한다. 그리고 강간에 길들여진 형보의 폭력에 초봉은 모성애로 대결한다. 그런데 형보는 자신의 아이 송희²⁰⁾를 괴롭힘으로써 초봉이 모방하는 도덕적인 어머니의 자리를 위협한다.

미상불 세상사람들은 형보가 꺾사요 또 형용이 추하게 생겼대서, 속을 주기전에 더퍼노코 멸시를했고, 이 멸시속에서 형보는 자라났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있다. (...) 연한 동심은 조히 자라지를 못하고 속에서 갈퀴가타리 옥고 배암가타리 서리서리 서렸다. 심술이 굵고 음험해졌다.²¹⁾

가해자로서 형보의 위치는 사실 모호하다. 그는 생김새부터 약자의 위치에 서 있기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지배를 받아왔다. 그에게는 피해자를 굴복시킬 논리 혹은 부정성의 정신이 녹아있지 않다. 괴물인 그는 사람들의 멸시나 동정,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며, 이 속에서 그가 취득한 복수의 정신은 부분적인 부정성으로 피해자의 언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봉은 어머니나 제호의 논리에 복종하는 것과 달리 형보의 위협에는 움적이지 않는다. 초봉이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모성애이며 모성애를 당연시하는 근대 가정의 윤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봉은 다른 가해자와 달리 형보에게는 저항하는 것이다.

20) 박제호는 초봉의 생리가 끝난 25일 후에야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송희의 아버지일 수 없으며, 고태수 역시 만성 임질로 여러 여성과 오랜 관계를 맺었으나 아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버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21) 위의 책, 393~394쪽.

경제적으로든 생식적으로든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어머니의 도덕이 채우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는 부드러움과 동정심에 기대어 자식의 운명을 지배하지만 어머니의 명령에 따른 초봉의 운명은 점점 타락과 불행으로 빠져들고 만다. 형보는 그러한 어머니의 도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탁류』의 고아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의 부도덕성이 그가 가진 약자, 피해자의 위치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부정성을 가진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성애에 기반한 초봉의 폭력에 희생되고 만다. 그렇다면 『탁류』에서 반복 묘사되고 있는 이러한 폭력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3. 유사 가족의 형성과 폭력

『탁류』에는 두 개의 살인이 기록되고 있다. 첫 번째는 한참봉에 의한 아내 김씨와 고태수 살해이고 두 번째는 초봉에 의한 남편 장형보 살해이다. 두 사건은 유사가족을 형성하는 아버지-어머니-자식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타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여 형성된 유사가족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애증에 기반한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다. 이는 두 번의 살인뿐 아니라 형보의 초봉 강간 사건, 승재의 고태수 살해 미수 사건, 제호와 초봉의 밀회 등 『탁류』의 주요 사건에 대부분 개입하고 있다. 『탁류』의 인물들은 서로간 유사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 내부의 파괴와 폭력, 지배와 피지배의 소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봉이는 두고보면 두고볼수록 소탕하고 시언스러운 제호가 사람이조 앓고, 비록 본이야 남이지만 그러한 아저씨를 둔것이 기뻐다. 만일 제호가 정말로, 외가로든지 친가로든지간에, 아저씨가된다면 더욱 마음 든든하고 미더울것가텃다.²²⁾

먼저 초봉은 『제중당』의 주인 박제호가 가진 구변과 떡심과 능력을 신뢰하여 그를 유사-아버지(아저씨)로 대하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인 고용주 제호를 신뢰하지만 그들의 유사 가족관계는 손쉽게 깨어질 수 있다. 가족에 투입한 외부인이란 진짜 가족을 깨뜨리는 부정성을 가진 까닭이다. 고태수와의 짧은 결혼이 끝난 후 그들의 유사 부녀관계는 제호의 아내 윤희가 늘 걱정하던 대로 부부관계로 바뀐다. 사기나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겪고도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 무지한 피해자 초봉은 윤희가 자신과 제호사이를 의심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호를 믿고 온천까지 따라간다. 그녀는 온천의 풍속, 즉 남녀가 함께 탕을 사용하고 함께 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제호의 의도를 이해한다.

그러나 과단잇시 별떡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대신, 기운이 착 까라지고 한숨이터져나왔다. / 온갖 여망을 거기다 부티고 차져가던 그사람인것을 여기서 떼치고 혼자 나설일을 뒤미처 생각하니 마치 어머니를 길에서 일허바린 애기가티 압일이 아득하여 어쩔바를 몰을것 것가만 했든것이다.²³⁾

초봉은 딸과 같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제호에게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지 못한다. 복중에 길들여진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그는 난관 앞에서 한숨과 눈물을 지을 뿐 저항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제호를 잃는 것을 ‘어머니를 길에서 일허바린 애기가티’ 생각하며 여전히 제호를 부모처럼 의지하는 것이다. 그들의 부부관계 또는 부녀관계는 제호의 진짜 아내 윤희가 귀경하기까지 일년 가까이 지속된다.

제호-윤희 부부 사이에 끼어든 가짜 딸 초봉이 부부 사이를 파괴하

22) 위의 책, 57쪽.

23) 위의 책, 326쪽.

는 것처럼 한참봉-김씨 부부 사이에 끼어든 가짜 아들 태수 역시 부부 사이를 파멸로 이끈다.

태수는 생김새도 밋지안커니와성품도 사근사근하니 정이붓게하는데가
 잊서 탐삭부리 한참봉더러도 아저씨 아저씨하고정말 일가뻘이나되는 족
 하처럼 따르고더러는 맛조흔 정종병도 차고들어와 적적한 밥상머리에안
 저반주도 권해주고 하는짓이밋지안케 굴었다. 탐삭부리 한참봉은 그것도
 자식업는사람의 약한인정이라, 태수가 그래주는것이 적잔이 위로가되고
 그러는동안에 정이들어, 지금와서는 어느때는 태수가 꼭 자기의 자식이나
 친족하가티 생각되는때도있다.²⁴⁾

집안에 투입한 낯선 청년은 사근사근함과 고운 외양으로 늙은 부부
 을 매혹한다. 자식이 없는 부부는 그 청년을 아들이나 조카처럼 사랑하
 지만 그가 친자식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집안에 낯선 청년을 들여놓
 은 순간 그의 친근함은 가족 파괴로 이어진다. 이를 약삭빠르게 간파한
 것은 제호의 아내 윤희이며, 윤희가 초봉에게 가하는 히스테리는 사실
 정당한 것이다. 초봉과 제호 사이의 친족 같은 다정함이 사실 남녀 관
 계임을 눈치챘기에 윤희는 초봉을 결코 집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는다.
 윤희의 히스테리아말로 초봉과 제호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한 도덕적
 인 힘이라 할 것이다. 반면 한참봉은 타인 태수를 친아들처럼 생각함으
 로써 아내 김씨와 태수 관계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가 아내의 욕망
 을 깨닫지 못하고 첩에게서 자식을 바랄 때, 아내는 태수를 이용해 자
 식을 보려 한다. 첩을 통해 자식을 보려던 유사 아버지의 욕망은 유사
 아들에 의해 처벌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한참봉-김씨-고태수를 둘
 러싸고 진행되는 갈등은, 지배자 어머니의 채찍질을 통해 자신 속에 숨

24) 위의 책, 129쪽.

어 있는 아버지를 처벌한다는 마조히즘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륜 관계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불모성의 흔적으로 성병만 옮길 뿐이다.

김씨는 물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는 태수가 미워도 물고 이뻐도 문다. 물어도 그냥 질근질근 무는것이아니라 사정업시 아드득 물어뜯는다. 이러케 물어뜯는 맛이란 잇넙속이 근질근질한 몸이 금시로 녹으라지는것기터 세상에도 꼭 둘째가게 조치 셋째는 가지아니한다. (...)

『아프냐』/ 김씨는 조아서 태수의 얼굴을 가웃시 되려다보다가 그의 머리를 안아올려 무릅에 베개해준다. / 『응 아퍼죽겠서!』 / 『아이 가엽서라 내새끼. 자아그럼 세째-해중께!』²⁵⁾

김씨와 태수의 성관계는 엄마와 아이의 장난과 투정, 꾸중과 매질 같은 형태를 띠며 사도마조히즘의 유희를 펼쳐 보인다. 투정하는 아이와 매질하는 어머니의 형태로 복종과 지배를 연마하는 가족 드라마 속에서, 물어뜯기는 아이 태수와 물어뜯는 엄마 김씨는 모두 특별한 쾌락을 느낀다. 그들의 성관계가 죄의식조차 갖지 못한 채 물고 뜯는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욕과 파괴욕의 결합을 상기시키며 그들 관계의 파멸을 가져온다. 그들의 유사 가족관계를 철저히 신뢰하던 한참봉이 그들의 불륜을 목격하고 광기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은 그들의 성관계가 가진 파괴적 격렬함에 정확히 대응하는 셈이다. 또한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성적 공모관계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욕망, 역외디푸스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위의 책, 125~126쪽.

아랫목에는 뜻밖게요 동시에 당연한 광경이 벌어져있다. 낭자하든 곳
을 수습치아니한채 잠이들은 반나체 두 개의 다리와 다리 팔과팔..... (…)
산이라도 떠바들 무서운 힘과분노의 덩치가 바우뎀이 쏠리듯 달려들어/
이히년!』하는 노호와 동시에 벼락치듯/ 따악』 골통을 내리 갈긴다.²⁶⁾

어머니와 아들의 성관계와 쾌락이 격렬하면 할수록 그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분노와 파괴욕 역시 광기로 치달는다. 낭자한 쾌락에 빠져있던 김씨와 태수는 그 쾌락의 끝에서 한참봉에 의해 뜻 아니한 죽음을 맞이한다. 한참봉은 “눈아폐 송장이 두 개나 나동그라져있고 그러고 제 손으로다가 죽이기는 죽였는데 그러나 지금마음가터서는 아무리해도 제자신이 저즈를수가잇는짓갓지를” 앓은 흥분 상태에서 태수와 김씨를 몽둥이로 살해한다. 한참봉이 아내의 간통에 그토록 분노하는 것은, 아내가 자식뻘 되는 청년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식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초봉과의 결혼에서 한참봉과 김씨가 태수의 어머니를 대신해 부모 노릇을 했던 것처럼 한참봉에게 태수는 하숙생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내와 젊은 남성의 불륜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의 불륜을 목격했기에 그는 그토록 광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아내와 태수의 불륜, 어떤 의미에서는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아버지의 도덕을 행사하지만, 그 자신 자식을 위해 첩을 가까이한 (일부일처제 밖의) 남편이라는 부도덕을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만다.

실제로 고태수를 살해하는 것은 한참봉이지만 그 과정에는 형보의 태수 살해 욕망이 개입한다. 태수는 초봉을 둘러싸고 형보와 승재 모두에게 질투와 살해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형보가 실제로 태수를 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승재는 그 욕구를 실험으로 전환한다.

26) 위의 책, 282~283쪽.

얼굴이 가름하되 흘죽하지아니하고 볼사대기가 도독한것이며 이목구비가 모두 골라서 미남자로 생긴 태수의모습사리가 담박 판에색인 부각처럼 똑똑하게 인상이백했다. 승재는 웬일인지 반가운것가트면서도 해사하니 이쁘게생긴 태수의얼굴을 무얼로 으깨려주고시픈 충동을 느꼈다.²⁷⁾

승재는 병원을 찾아온 태수의 정체를 알게 되자 반가움과 동시에 얼굴을 으깨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태수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에 동생을 대하는 듯한 반가움과 친근감을 느끼는 동시에 연적이기에 살해욕을 느끼는 것이다. 연적 태수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초봉에 대한 승재의 감정이 연애일 뿐 아니라 가족애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봉에게 의붓누이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초봉 가정에 끼어든 유사 오라비이다. 유사 가족으로서 승재는 초봉 가족에게 태수의 성병 사실을 알려 결혼을 깨기보다는 그의 성병을 치료함으로써 그 결혼에 거는 가족들의 기대를 이어간다. 반면 연인으로서 그는 태수의 생명을 주사기로 농락함으로써 생사를 가르는 의학의 힘을 향유함과 동시에 초봉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러한 절대권을 누린다. 이런 점에서 승재의 폭력은 유사 가족 내에서의 지배와 파괴를 암시하는 한편 생명을 좌우하는 유희의 형태로 근대 의학의 사디즘을 드러낸다. 치료 명목으로 인간의 몸을 함부로 가르고 인간의 영혼까지 해부하는 근대 의학의 폭력적 성격은 승재의 실험실, 주사기와 청진기의 차가움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죽이고 살리는 최후의경계선그것은 오부라트와가티 얇은 한겹사이다. 이 얇은한겹의 이쪽을향하여 독약을준비하고 그놈을 주사기에 켜올리고 그놈을 쳐들고서 제웅의 얼굴과 번가러 치어다보고 마침내는 혈관에다

27) 위의 책, 208쪽.

갓다대이고 폭찹틀드끼 별르고 여기까지 그는 천연덕스럽게 해왔다. 거기까지가 목적지다. 그러니까 그는 얼굴에 살기도 들어나지아니했다 다만 신경의 긴장이 유쾌했을따름이다.²⁸⁾

승재는 청산가리를 준비해두었다 주사액 속에 섞어 그것을 태수의 정맥에 찌르는 살해 장면을 연출해낸다. 그는 침착한 얼굴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은 신경의 긴장이 유쾌했을 뿐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죽이고 살리는 최후의 경계선인 얇은 한 겹 사이에서 신과 같이 생명을 좌우해 보고픈 충동을 주사기의 연출을 통해 만족시킬 뿐이다. 누이동생 같은 연인 초봉을 짓밟으려는 존재이기에 태수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죽음의 얇은 선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초봉의 남편이 될 존재이기에 또한 애정의 대상이 되어 그의 성병에 대한 치료를 행한다. 승재의 폭력은 어디까지나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의 연출로, 그는 법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파괴충동을 통제한다.

한편 장형보는 유사 오라비 남승재나 유사 아버지 박제호와 또 다른 지점에서 초봉과 유사 가족관계를 맺는다. 태수와 결혼한 초봉은 그들 가정에 투입한 형보를 '아재'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대하지만 곧 그의 배신으로 남편은 살해당하고 자신은 그에게 강간당하는 폭력과 가정 파괴를 겪게 된다. 이후 형보는 초봉과 부부행세를 하면서 처제인 계봉에게 욕망을 품는다. 형보가 계봉에 대한 욕망을 가시화하자 초봉은 자살하려던 결심을 바꿔 형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즉 초봉은 형보와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계봉과의 자매관계에 입각해 근친상간의 욕망을 처벌하는 도덕적 위치를 점유한다. 근친상간에 대한 처벌자로서 기능할 때 초봉은 아내와 자식의 성관계를 처벌한 한참봉과 같은 도덕률을 모

28) 위의 책, 224쪽.

방하는 셈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초봉의 모순은 법 너머의 초자아를 구성하려는 사디즘적 시도라기보다는 자살을 대체하는 살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니때는 한짝씩만 들마시제도 힘이 부치는 멧돌이다. / 번쩍 턱밧까지 노피 쳐들어올린 멧돌을 형보의 가슴패기 겨누어 앙칼지게 내리 부는뎡다. / 떠그럭』/ 꺾』/무던 소리와 한 가지로 육중한 멧돌이 등의 폼사혹에 떠바치어 빗밧이 기운, 형보의 앙기슴을 으깨리고 둔하게 굴러내린다.²⁹⁾

초봉은 태수와 아내 김씨를 죽인 한참봉과 마찬가지로 분노가 팽배해 자신의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보를 죽인다. 형보의 급소를 내리치르다 그가 쓰러지자 평소에는 한짝씩만 들어도 힘에 부치는 멧돌을 들어 형보의 가슴을 으깨버리는 초봉의 폭력은 “완전히 초봉이 제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한 개의기적인것가터 경이의 눈으로이결과를 내려다보지 안덜못했다.”³⁰⁾ 이러한 폭력은 사실 피해자의 일시적인 분노일 뿐 진정한 저항이 되지 않는다. 형보를 살해했다고 해서 초봉이 스스로의 힘을 믿게 된 것도 아니며 모든 제도를 벗어나 무법적 초자아의 위치에 선 것도, 완전한 도덕적 우위에 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참봉이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달리 초봉은 형보의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제도적 우위에 섰기에 살인에서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로서 아이를 안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모성이 오염되었음을 느끼기에 도덕적 우위에 서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그가 자현을 통해 제도로 복귀할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³¹⁾

29) 위의 책, 578쪽.

30) 위의 책, 579쪽.

『탁류』에서 한참봉 내외와 고태수, 박제호와 초봉, 남승재와 (초봉-) 고태수, 장형보와 초봉(계봉) 사이에는 유사가족관계가 맺어진다. 그러나 부부관계나 부자관계에 침입한 유사 아들 혹은 딸, 아저씨들은 실제로는 타인에 불과하기에 유사 가족관계는 손쉽게 성관계로 변화하고 이로부터 강간, 살인과 같은 각종 폭력이 자행된다. 『탁류』의 혼탁함이란 유사 가족관계에서 자행되는 이런 폭력들이 저마다 도덕적인 처벌이나 법적 정당함을 내세우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정당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폭력을 통해 아무것도 정화되지 못한다면 『탁류』의 사디즘이 추구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탁류』에서 도덕이나 제도 너머 진정한 부정성을 구현하는 지배자(아버지)는 누구인가.

4. 법과 도덕의 아이러니와 사디즘

『탁류』가 아버지가 부재하는 혼탁한 세대 속에서 유사 가족관계로 맺어진 인물들 간의 법적, 도덕적 범죄와 폭력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때, 이 폭력 구도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죽음을 가져오는 폭력과 부도덕한 지배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초자아(지배자)로서 기존 도덕이나 법 등에 대해 아이러니한 태도로 부정성을 표출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들뢰즈에 따르면 사디즘의 폭력은 참된

31) 김연숙은 『탁류』에서 초봉의 부정적인 속성은 인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억압된 타자의 형상화라는 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봉은 비극적인 자신의 운명에서 자신의 타자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동일화 때문에 철저히 매몰된 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김연숙, 『채만식 문학의 근대 체험과 주체구성 양상 연구』, 경희대 박사, 2002, 77쪽.) 본고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한편 이러한 초봉의 운명이나 폭력에 대응하는 자세에 상반되는 존재로서 기생 행화 등이 가진 의미를 긍정할 것이다.

부정의 정신 속에서 제도와 법이 선과 무관하다는 현실을 발견한다. 진정한 초자아는 법이나 도덕을 초월한 지배를 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무정부주의의 정신으로 이어진다.³²⁾ 현실 제도를 부정하고 오직 지배의 폭력 속에서 독자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존재를 가정할 때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것이다.³³⁾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묘사하는 『탁류』에서 현실의 어두움을 직시하고 도덕과 법에 대한 조롱을 표출하며 부정성 속에서 운명의 지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생 행화와 유곽집 여주인이 된다.

『탁류』에서 손바닥을 얹치고 제치는 사이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미두장과 박제호의 제약회사는 표면적인 질서에 무질서가 내재한 식민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대변한다.³⁴⁾

『...세상이 아직두 모다 어수룩하단말이야 어수룩해 이걸 오천원에 사
는놈이 잊지를 안나, 삼십십전짜기 약을 맨들어서 광고를 크게내면, 저이
가 광고비까지 약값에다가 꺼서내구조타구 사다먹지를 안나 그러니 장사
해먹는 이놈이 손복할지경이지? 생각하면 벼락을 마칠일이야. 허허허허
제-기할것』³⁵⁾

32) 들뢰즈, 앞의 책, 91~101쪽 참고.

33) 사디즘이 선과 무관한 법을 부정하고 법 너머의 논리를 가정함으로써 부정적인 초자아를 구축하는 아이러니에 기대고 있다면 마조히즘은 계약에 의해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아를 구축하는 유머에 기대고 있다. 들뢰즈, 앞의 책 참고. 마조히즘과 유머의 관계에 대해서는 즐고, 「매저키즘의 관점에서 본 김유정 소설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학회, 2006.12 참고.

34) 『탁류』에서 미두장은 식민지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기존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이대규, 「『탁류』의 도시공간 연구」, 『현대소설연구』 10, 1999를 들 수 있다.

35) 채만식, 『탁류』, 60~61쪽.

정주사나 고태수들을 과멸시키고 박제호와 장형보들을 자꾸만 더 부자가 되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허수룩함으로 가득찬 기만적인 세상이다. 삼사십전짜리 약을 광고비까지 꺼서 십원씩 내서 사다먹도록 할 수 있는, 복잡한 회로와 유통구조 속에 현물에 대한 실질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 그것은 모두를 어수룩하게 속이고 모두에게 일정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몇몇을 살찌우는 폭력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부정성에 대한 통찰은 그 법과 제도가 가진 아이러니를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성이란 사실 박제호나 장형보가 보여주는 폭력이나 착취 일 뿐 그 법이나 제도의 선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제도에 반항을 피할 때 참된 사디즘의 주체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제호와 형보 등이 초봉에게 가하는 지배논리는 어머니 유씨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유씨가 아버지에 대한 동정론을 내세워 초봉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제호는 초봉에게 처녀성을 잃은 여성의 운명을 내세워 복종을 요구하고 형보 역시 모성애에 기대어 초봉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동정과 모성애 등과 같은 이들의 표면적인 도덕성은 그들의 지배 행위가 가진 폭력과 결합할 때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런 놈을 그냥 두구본담! 마구 죽여 업세던지.....』 (….) 『그래두 육법 전서가 다 보호를 해 주잔우? 생명을 보호 해주구..... 또 재산두 보호 해주지..... 수행법?이라더냐 그런게 잇서서, 고리대금을 해먹도록 마련이 게..... 머 당당한 서민인걸요..... 천하 악당일갑시!.....』³⁶⁾

자본주의 제도가 보호해주는 악당 형보의 죽음을 통해 선악을 벗어난 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디즘의 논리에 충실해진다. 진정한 초자아

36) 위의 책, 536~537쪽.

의 자리, 법을 초월한 부정성에 대한 모색이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승재와 계몽의 모색은 공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실제로 제도가 보호하는 악당 형보와 부딪혔을 때 승재나 계몽이 형보의 논리(수형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보호하는 시민)에 맞서 초봉을 구해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승재가 형보를 죽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속여 처벌받지 않을 때에야 그들의 승리는 확인해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복잡다단함을 보여주는 미두장과 대비되는 승재의 실험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승재와 계몽의 모색은 분별도 없는 막연한 덩치로, 현실 감각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 “다만 병원에안저 검은기를 통해서 맥박의 수효나 청진기를 통해서 렌즈겐이나 타진을통해서 주사기를 들고 처방전을 들고 칼테를들고 다만 병든인생만을 대해”³⁷⁾ 온 승재에게는 제도와 법이 악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승재는 초봉과의 관계를 통해 계몽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다.³⁸⁾

과학의 논리를 떠나 현실을 발견하면서 승재는 유씨의 도덕률에서 이탈한다. 초봉이 고태수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옹호하던 승재는 초봉이 점점 더럽혀짐을 따라 계몽의 논리에 동조하며 교양이라는, 낡았으나 도덕적인 명분에 회의하게 된다. 부모를 위해 희생한 딸은 분명 선하지만 현재 초봉의 불행은 그것이 진정한 도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승재는 처음으로 현실과 대면해, 교육이나 계몽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의 논리만이 생을 긍정할 수 있게 만들음을 자각한다.

37) 위의 책, 150쪽.

38) 우한용은 교육적 담론 측면에서 『탁류』를 승재의 의식 성장에 주목하여 해석한 바 있다. (우한용, 『채만식 소설담론의 시학』, 개문사, 1992, 153~162쪽.) 그러나 초봉과의 관계에서 승재는 여전히 공포를 느끼며 감격성 측면에 머물러 있기에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너는 그래서 순사가 되겠단말이지? 느이 아버지가 남의쌀을 몰래갓다 가먹어두 너는 잡어가지 안켓단말이지?』 / 『내애』(…) 『그럼 남의쌀을 몰래 갓다가 먹은 아버지는 그랬서두 아버지는 착한 아버지란 말이지?』 / 『아니요』 / 『아니야?』 / 『내애』 / 『그럼 나쁜 아버지인가? 중쇠랑 동생들이랑 배고파하니까 밥 해먹으라구..... 그래서 그랬는데.....』 / 『그러니깐 나는 아버지 붓잡어 안가요』³⁹⁾

자본주의 사회의 법과 선악은 여기에서 아이러니를 이룬다. 도둑질은 나쁘지만 배고픈 자의 도둑질은 나쁘지 않다.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동정의 여지도 있다. 동정할 수 있는 범죄란 과연 선인가, 악인가. 사유재산을 둘러싼 법적 구속력은 수많은 동정의 여지를 만들어낸다.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하지 못하는, 노동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강조한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도둑질을 한 아버지를 잡아가지 않기 위해 순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의 아이러니는 제도와 법, 도덕성을 초월한 또 다른 기준이나 논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제도나 법, 도덕성으로부터 초월하는 진정한 초자아의 논리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정조나 계몽이나 교양에 대한 회의가 이어질 때 드디어 현실 논리를 구현하는 기생 행화나 유곽 여주인의 긍정성이 발견된다.

『...자 당신님두 저에네형편을 잘 아시겟구료? (….) 못어더 먹구 혈벗구 뼈가 휘게 일올하구 그러구두 밤낮 방망이 째이나 밧구..... 이러면서 그 숭악한 농투산이한테, 계집으로 한사내 생긴다는 꼭 고것 한 가지 그까짓 것이 무슨 그리 큰 자랑이라구..... 그까짓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영광이라구 그노릇을 한단말씀이요? 대체 춘향이는 이도령이 다 잘나구 또 제

39) 채만식, 『탁류』, 462쪽.

정두 잇구해서 절개를 지켰다지만 시방 여니 게집들이야 그까짓 일부종사가 하상 그리 대단하다구 촌 농투산이한테 매달려서 그고생을 할게 무어란말씀이요?..... 당신님이 다 귀여하고 그러신다니 저애만하더래두 내가 시방 이야기한대루 촌에가서 그팔짜가 된다면 당신님 생각에 조켓수? 네?..... 나가트면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다 두지!』⁴⁰⁾

유곽 여주인은 명념에 대한 승재의 동정과 정조윤리를 비롯하며 제도나 도덕 너머의 현실논리를 설파한다. 배고파 도둑질을 하느니 몸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떳떳하며 농투산이의 아내가 되어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기생이나 갈보가 되어 노름에 팔리는 삶이 낫다. 이러한 현실논리아말로 지배력을 발휘한다. 동정할 여지가 있는 범죄자라는, 선악 경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선부른 동정이나 도덕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초월적인 권력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기생 행화와 유곽 여주인은 현실감과 비관정신을 고루 갖춘 독특한 부도덕성을 가진 인물들이다. 그들은 일부일처제 가정을 꿈꾸지 않으며 가난한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일부일처제 가정이 결코 스위트홈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리타 펠스키는 창녀가 19세기 사회적 상상력 속에서 갖는 중요성과 그 시기의 문학예술 속에서 갖는 상징적 위상에 관해 논하면서 근대 사회 속 창녀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판매자이면서 상품이기도 한 창녀는 성애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상징이며, 경제와 성욕, 합리성과 비합리성, 도구성과 미학성 간의 경계를 교란하는 예로서, 근대사회에서 여성의 잠재적인 익명성을 가시적으로 일깨우는 존재이자 가족적, 공동체적인 속박으로부터 성욕을 해방시키는 존재였다는 것이다.⁴¹⁾ 이와 같은 창녀의 이중적 의미망 속에서 볼 때 행화나 유곽

40) 위의 책, 475~477쪽.

41)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심진경 역, 거름, 1998, 47~48쪽.

집 여주인이 가진 의미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행화는 초봉처럼 친정식구들을 위해 기생노릇을 하지만 결코 자신이 희생되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정조를 절대시하고 처녀성과 희생에 고착되어 복종의 논리만 배운 초봉에 비해 적극적인 현실 논리 속에 희생을 계산으로 바꾸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니 장주사두 철부지소리를하지안소?.....』 / 이러케 성구는 행화는 그러타고 흥분한것은 아니나 농담하는 낫꼬춘아니다. / 『..... 기생이면 기생가티 돈이나벌구 다 그러지 무얼 팔사탄식을하구 첩이실타구 남의 조강지처나 바래구 그러는거 나는 구역이나더라. 그러구 명색이 기생이 연애한다는거 아이구 원 메시꺼워 못보겟더라』(…)

글세 고주사나 내만 두구서 하는말이아니라. 기생이 무슨 연애를하오? 예? 못놈들이 다루든 몸둥이지..... △△이야○○이 시글시글해서 한쪽이 썩어들어가지....., 그런 몸둥이를 가지구 무슨연애를하오?』(…) 『연애를 하면 다 사람질하나? 제! 요번에 저아페서는 개두 연애를하든데?』⁴²⁾

초봉의 희생이나 복종의 논리와 다른 행화의 변, 행화의 논리는 부정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기생이 되어 친가를 부양하며 자신의 행위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위약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기 몸이 갖은 성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못놈들이 다루는 더러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자각하고 있기에 기생이 연애를 한다거나 기생이 절투나 결혼을 한다는 데 대해서 냉소적이다. 그는 감정에 연연하거나 일부일처제 속으로 편입하기를 꿈꾸지 않기에 오히려 지배력을 갖는다. 초봉이 여러 남자들과의 관계를 거치며 성병에 걸리고 친가나 자식 때문에 파괴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반면 행화는 오히려 그들 위에 어른스럽게 군림하고 있다. 태수, 형보와 관계를 갖지만 그녀는 자기에 대한

42) 채만식, 『탁류』, 240~241쪽.

파괴충동도, 타인에 대한 파괴충동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친정두 먹구 살게시리 한끄터리 잡아주어야지!』 / 『에! 이건 바
루 기생 여대치는구나!』

『머 내가 기생보담 날데는있다드나?』 / 『무서운데!』/『또있다.....우리
친정 동생들서울루 데려다가 공부시켜주어야한다!』⁴³⁾

마찬가지로 초봉이 지배와 폭력의 피해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은 그가 몇 번의 복종과 그로 인한 불행을 겪으면서 자신을 기생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된 순간이다.⁴⁴⁾ 그는 기생처럼 당당하게 몸과 돈을 교환함으로써 처음으로 피해자, 복종의 위치에서 가해자, 명령의 위치로 상승한다. 비록 낮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초봉은 형보를 지배하며 자식과 동생들을 거느리는 가장 노릇을 한다. 즉 초봉은 행화와 같은, 현실을 자각하는 기생이 됨으로써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초봉이 행화나 유곽 여주인처럼 완전한 현실논리, 즉 자신의 몸부터 위악적으로 바라보고 정조를 상실했기에 자신이 누구보다 현실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자각했다라면 초봉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초봉이 형보를 죽인 것은 법 너머의 폭력, 참된 부정성을 발휘하는 장면이지만 그녀는 다시 계봉이나 승재와 같은 선량함, 도덕의 영역으로 돌아오고 말기에 무정부적인 초자아의 모습에 미달하는 셈이다.

43) 위의 책, 428쪽.

44) 초봉이 행화에 대해 갖는 호감을 바탕으로 이대규는 행화가 ‘여성의 자기희생을 강요하며 이를 미화시키는 식민지적 자본주의화에 대해서 여성해방론적 인식을 지니지 못한’ ‘타락한 자본주의의 희생자이면서 그 속성을 체현하고 있는 존재’로서 초봉의 중개자로 간주한다. (이대규, 『「탁류」에 나타난 근대성 체현 연구』, 『한국언어문학』 43, 1999, 420쪽.)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족에 대한 희생이라는 초봉의 욕망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은 행화라기보다는 어머니 유씨이며, 행화의 긍정성은 초봉의 운명과 대척되는 지점에 놓인다고 본다.

이처럼 근대 가족 논리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행화의 존재가 작중에서 가장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채만식의 사디즘이 향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준다. 전근대적 가문뿐 아니라 근대 가정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채만식은 오히려 매춘부에게서 가장 적극적인 삶의 논리, 어른스러운 삶의 형상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행화는 진정한 ‘사람질’은 ‘연애질’을 통해 일부일처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나 도덕 너머에서 삶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어가는 냉철한 정신이라 역설한다.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도덕률 너머의 초자아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가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화는 『탁류』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의 상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러게 손대일가무섭게 애뜻한 처녀가 주색에 폭빠져 헤둥대둥 하거나 하고 추접스런 △△이 부글부글 고이기나하는 오입쟁이요 난봉이지 그저 별수가업는 사내, 태수의 아낙이 된다는것은 적잔히 애석한노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케 애석한노릇이라고 생각을했을 그뿐이지 그보다 더 별달은 무엇은업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알턱이있나!) 이러케 쫓 하고 혀나한번 찻슬뿐이다.⁴⁵⁾

행화는 누구보다 정확히 고태수의 본질을 간파하지만 태수의 운명은 행화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는다. 지배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의 중심에 있지만 그 자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존재, 모든 것을 ‘쫓하고 혀나 한번’ 차는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인간상⁴⁶⁾이야말로 1930년대 후반에 채만식이 꿈꾸었던 세속적인 거인의 상이다. 행화는 불결

45) 채만식, 『탁류』, 249쪽.

46) 이러한 인간상은 역설적으로 채만식의 『냉동어』의 주인공을 통해 다시 구현되고 있다.

하고 부도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우위에 선 존재이다. 법과 도덕, 제도를 넘어섰기에 더 이상 어떠한 폭력에도 상처받지 않는 이러한 존재가 채만식이 1930년대 후반에 형상화하는 긍정성의 방향이다. 폭력이 난무하고 지배와 피지배, 복종과 저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채만식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지배 논리를 초월한 부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이 『탁류』를 관통하고 있는 부정적인 세태의 혼란과 다른, 진정한 부정성의 자리, 무정부적인 초자아의 자리 찾기와 관련된 의미가 되는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도덕과 제도 너머의 부정성과 지배에 대한 기획이라는 사디즘의 관점에서 채만식의 『탁류』를 재해석해 보았다. 먼저 『탁류』에는 그 경제력을 상실했거나 생식력을 상실했기에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아버지들이 등장하며, 그러한 아버지들에 대응하듯 대부분의 인물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설정되어 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도덕적 경제적 책임은 그 어머니에게 주어지는데, 이로부터 어머니의 도덕이라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제시된다. 『탁류』에서 그려지는 다수의 폭력은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도덕이 지배하는 가정 속에 투입한 유사 가족들에 의한 가족의 붕괴나 해체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유사 모자 관계인 김씨와 고태수가 성관계 끝에 한참봉에게 맞아죽고, 유사 친족인 박제호와 초봉이 부부관계를 맺으며 부부관계인 초봉이 남편 형보를 죽이는 것처럼 가족 내에서 폭력은 명령과 복종, 저항의 문제를 그 도덕성과 연관지어 제기하고 있다. 초봉은 형보가 비정상적인 성욕을 품고 있기에 처벌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시 어머니의 도덕

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초봉에 비해 『탁류』에서 현실과 도덕의 불일치를 수궁하고 도덕이나 제도 너머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초봉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오히려 어른스러움을 발휘하여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기생 행화이다.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도덕률 너머의 초자아로 변화시킴으로써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화는 아버지가 사라진 세계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어른)의 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탁류』를 통해서 채만식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거대한 부도덕의 지배와 폭력에 대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이 난무하고 복종과 저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채만식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지배 논리를 초월한 폭력을 그려 보이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선일보』

채만식, 우한용 주석, 『탁류』, 서울대출판부, 1997.

2. 단행본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우한용, 『채만식 소설 담론의 시학』, 개문사, 1992.

이래수, 『채만식 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6.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1992.

들뢰즈, 『매저키즘』, 이강훈 역, 인간사랑, 1996.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 심진경 역, 거름, 1998.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3.

3. 논문

- 김연숙, 「채만식 문학의 근대체험과 주체구성 양상 연구」, 경희대 박사, 2002.
- 김주리, 「매저키즘의 관점에서 본 김유정 소설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12. 195~323쪽.
- 박선경, 「『탁류』 여주인공의 세계인식과 행동양식에 대한 정신분석」, 『어문학』 71집, 2002. 229~255쪽.
- 박심자,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현실대응으로서의 여성주체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 2003.
- 신두원, 「채만식 소설의 리얼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리얼리즘』, 한양출판, 1995, 68~91쪽.
- 안낙일, 「비극성과 통속성, 그 심미적 거리-『탁류』의 대중문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4, 2002, 90~113쪽.
- 우한용, 「시대적 희생제의를 읽어내는 방법」, 『탁류』, 서울대출판부, 1997, 5~17쪽.
- 유화수, 「채만식 소설 연구 : 서사 전통과의 연계 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 1996.
- 윤영옥, 「채만식 소설의 상호텍스트성과 패러디」, 『한국언어문학』 48, 2003, 363~381쪽.
- 이대규, 「『탁류』에 나타난 근대성 체험 연구」, 『한국언어문학』 43, 1999, 411~430쪽.
- 이희정, 「채만식 『탁류』의 인물과 공간 연구」, 서강대 석사, 1999.
- 정홍섭, 「『탁류』의 개작과 『무정』 패러디」, 『어문논총』 31권 2호, 2003년 여름, 265~286쪽.
- 한지현,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본 『탁류』 연구」, 연대 박사, 1988.
- 한형구, 「채만식의 세계관과 창작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A Muddy Stream』 from the
viewpoint of Sadism

Kim, Jue-lee

This study reanalyzes the meaning of 『A Muddy Stream』 from the viewpoint of sadism related to search of sincere super-ego as the spirits of negativity. As a aesthetics of control, sadism destroys present systems, morals, rules etc. and relates to try for establishment of super-ego beyond systems. At first, the fathers of 『A Muddy Stream』 is not father because they lose of the manpower and virility, so most of characters are created to an orphan. Because of fathers lack of ability, mother is responsible to moral and economical decision, so mother-moral should be overcome to her children. The many violences shows in this works is due to a pseudo-family who intrudes a matriarch and aparts the family. The violences in families shows the obedience and resistance to the ruler, like as Kim and Go Tae-su made connection as pseudo mother-son was killed by pseudo father, Hyung-bo was killed by Cho-bong, his wife etc.. Cho-bong return to her mother Yu's morality with punishment to Hyung-bo's mean desire. Apart from Cho-bong, Hang-hwa and the hostess of licenced quarter shows the affirmativity beyond moral and rules, who know the disagreement between real world and system, even though they sacrifice for their families. They show new shape of father in the age of destroyed father,

in the point that they lead their lives like a grown-up with subjectivity through prostitution in the society of colonial-capitalism.

Key words : Sadism, Absence of father, Violence by pseudo-family, Irony of rule and moral

■ 본 논문은 4월 15일 투고되어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